

17C 네덜란드와 아시아 국가간 관계 - 조선과 일본을 중심으로 -

이윤영 (李允榮)

16세기부터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한 국제교역을 바탕으로 부를 축적한 네덜란드는 세계 최초로 진정한 상업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이러한 국력을 바탕으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이어 세계 해상패권을 차지하며 한때 세계 최대 식민지 제국을 구축하였다.

우리나라 경상도 크기의 작은 나라인 네덜란드가 유럽을 넘어 아시아와 아메리카 신대륙으로 진출을 시작하게 된 역사적 경위와 해상패권을 차지하게 된 원동력, 그리고 아시아 국가들 특히, 당시 조선 및 일본과 접촉한 역사 분석을 통해 조선과 일본은 왜 네덜란드 세력의 진출시도에 대응하는 태도가 달랐으며, 이로 인해 양국의 국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성균관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와 석사를 각각 받은 후 영국 런던정경대학(LSE)에서 경제학 석사와 유럽정치학 석사를 받았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원을 거쳐 외교부에 입부, 통상교섭본부장 보좌관, 자유무역협정교섭국장을 거쳤으며, 국장 시절 일본, 인도, 아세안, 콜롬비아, 칠레, 뉴질랜드 등 FTA 협상, 이행 담당 대표를 담당하였고, 방글라데시, 부탄, 네덜란드 대사를 역임하고 정년퇴임 하였다. 네덜란드 대사 시절에 세계화학무기금지기구(OPCW) 당사국총회 의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성균관대 객원교수, 국제조정센터(KIMC) 이사, 한국조정학회 이사 등을 맡고 있다. 저서로는 <<EU정책브리핑>>(공저), <<EU를 알면 우리가 보인다>>(공저)가 있다.

일시: 2020년 11월 24일 (화), 16:00-17:00

장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영원홀 (210호)